

하상주보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4년 12월 29일
제2033호

주임 신부 : 배하정 다니엘

보좌 신부 :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회장 : 안민철 미카엘

연령회장 :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메일: sthasang@gmail.com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가정 성화 주간 (다해)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루카 2,51-52)



<성가정>, 클라우디오 코엘로

제 1 독서 집회 3,2-6.12-14 <또는 1사무 1,20-22.24-28> |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아버지를 공경한다.

화답송 시편 128(127) |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제 2 독서 콜로 3,12-21 <또는 1요한 3,1-2.21-24> |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생활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복음 루카 2,41-52 | 부모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냈다.

부모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냈다.

41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42 예수님이 열두 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43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44 일행 가운데에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45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46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47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48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49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50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51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52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복음 묵상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머니 마리아는 미혼모였습니다. 양아버지였던 요셉과 혼인한 뒤, 당시 임금이 아이를 죽이려 하자 이를 피하여 이집트로 갔다가 나자렛으로 돌아오는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아들 예수는 성인이 되어서도 일은커녕 어부들과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우리가 성가정이라고 부르는 예수, 마리아, 요셉의 가정은, 실상 행복한 가정이나 기쁨이 흘러넘치는 가정, 또는 자녀들이 성공해서 부모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가정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정을 본받으려 합니다. 성가정의 중심에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루카 1,38 참조)을 가지셨고, 요셉 성인은 언제나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마태 1,24; 2,13-15,19-23 참조)으로 살았으며, 예수님께서도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필리 2,8) 아버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부모에게도 순종하셨고, 성모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조차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시며’ 하느님의 뜻을 찾으셨습니다(루카 2,51 참조).

오늘날 많은 가정이 사랑을 잃고 가족들은 외로워합니다. 가정이 하느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순종, 마음속에 간직함,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찾는 기도. 이것이 가정이 성화되는 길이고, 외로움과 서로에 대한 무관심에서 빠져 나오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2,51). 아멘.

(김재덕 베드로 신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은 나자렛의 성가정을 기억하며 이를 본받고자 하는 축일이다. 1921년 이 축일이 처음 정하여질 때는 주님 공현 대축일 다음 첫 주일이었으나, 1969년 전례력을 개정하면서 성탄 팔일 축제 내 주일(주일이 없으면 12월 30일)로 옮겼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부터 해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부터 한 주간을 ‘가정 성화 주간’으로 지내고 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가정 공동체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보금자리로 가꾸어 나가게 하려는 것이다.



바오로 딸 콘텐츠



‘희망의 희년’ 시작

-프란치스코 교황, 24일 밤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 성문 열어-



프란치스코 교황이 12월 24일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의 성문을 열고 들어서며 2025년 희년을 시작하고 있다. CNS

12월 24일 밤 프란치스코 교황이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의 성문(Holy Door)을 열었다. 이로써 교황이 ‘희망의 희년’이라고 부르는 희년이 시작됐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문’이라고 묘사한 짧은 요한복음 구절을 낭독한 후, 휠체어를 타고 성 베드로 대성당 성문으로 향했다. 교황은 침묵 속에서 몸을 일으켜 다섯 번 문을 두드렸고, 안쪽에서 보좌관이 녹색 소나무 가지와 빨간 장미, 금색 솔방울로 장식된 성문을 천천히 열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의 성문을 여는 의식은 1450년 희년 이후 가톨릭교회 희년 축제의 전통적인 행사로 자리잡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5년 희년의 표어를 ‘희망의 순례자들’ (Pilgrims of Hope)로 정했으며, 희년은 2026년 1월 6일까지 이어진다.

2025년 희년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
 세세 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Franciscus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번역)

1 봉성체

- 일시: 1월 3일(금) 오전 9시
- 신청: 정문기 윌리엄 (703) 598-3316

2 첫 금요일 떼제 미사 및 성체 강복

- 일시: 1월 3일(금) 오후 7:30분 미사 및 성체 강복
- 7시부터 떼제 성가 연습을 하였습니다.
- 떼제 성가 배우실 분들께서는 일찍 성당에 오시면 성가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3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

- 일시: 1월 4일(토) 오전 10:30 (신심 미사)
- 파티마 사도직 기도회: 오전 9시
-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로 새벽 미사는 없습니다.

4 구역 봉사자 회의

- 일시: 1월 5일(일) 오전 11:30 (B-3,4)

5 K of C 월례 회의

- 일시: 1월 5일(일) 오전 9시 (B-2)

6 2025년 본당 달력 배부

- 2025년 본당 달력을 배부했습니다.
- 각 가정당 한 부씩이며, 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 본당 직원분들이나 사목회 회장단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2025년도 바오로딸 성경학교 1학년 신입생 모집

- 내용: 신약/구약 입문과정 2년
- 공부 방법: 우편통신 또는 E-Learning 중 선택
- 등록: 주일 미사 전후 친교실 또는 구글폰으로 (단체 10명 이상 등록 시 입학등록금 20% 할인)
- 문의: 교육부 윤영미 로사리아 (703) 850-2968

- 자세한 정보는 QR코드 스캔
<https://forms.gle/k2ypfv2vU78NURfDA>



8 2024년 교무금 납부 안내

- 세금 정산서 발급 관계로 2024년 교무금 납부를 12월 29일(일)에 마감해야 합니다.
- 교무금을 정산할 교우분들께서는 날짜를 꼭 지켜주세요.
- 2025년 교무금 카드는 세금 공지 납부서와 함께 우편으로 각 가정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 당분간 교무금 카드 없이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미사

- 일시: 12월 31(화) 저녁 7시 30분
- 한 해를 마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받으며 선달그믐날 송구영신 미사를 봉헌합니다.
- 미사를 봉헌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한 해를 마치고,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받으십시오.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 일시: 1월 1일(수) 오전 8시, 10시
- 학생 미사는 따로 봉헌하지 않습니다.
- 새해 시작인 만큼 가족들 모두가 주님께로 나오셔서 함께 미사를 봉헌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태섭 요한사도 신부님 영명축일 축하 및 송별 미사

- 일시: 12월 29일(일) 주일 모든 미사
- 신부님 영명축일 축하식 겸 송별 미사를 봉헌합니다. 아쉬운 마음도, 축하의 마음도 많이 담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 주일학교 CCD 첫영성체반 등록

- 2025년도 첫영성체반 등록을 받습니다.
- 대상: 3 - 6학년 주일학교 학생
- 등록: bit.ly/spc1st_2025 (12월 29일까지)
- 첫 수업 일시: 2025년 1월 8일(수) 오후 7시
- 수업 기간: 2025년 1월 8일(수) - 6월 1일(수),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8:30
- 문의: 임형준 이레네오 교감 (703) 624-8196

10 2025년 March for Life (생명 수호 행진)

- 일시: 1월 24일(금) 오후 12시 성당에서 출발(점심 제공)
- 내셔널 몰에서 U.S. Supreme Court까지 행진합니다.
- 따뜻한 복장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1월 19일까지(친교실, 사무실) 선착순 55명
- 문의: 허진 세바스찬 (703) 376-1372

성당 사무실

BOOK KEEPER(회계재무담당) 채용

- 성당 사무실에서 성당을 위해 새롭게 일할 BOOK KEEPER(회계재무담당) 직원을 찾습니다.
- 제출 서류: 자기소개서, 이력서 (지정된 문서 양식은 없습니다.)
- 제출 기간: 2025년 1월 12일(일) 교중미사 후 11시 30분까지
- 제출 방법: 본당 이메일 접수 또는 사무실 제출
- 서류 전형 후 면접은 추후에 날짜 통보



2025년 모든 계획서를 제출

- 회계 연도와 관계없이 2025년 한 해 동안 가질 교육, 행사에 대한 기획안을 1월 12일(일)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전체적으로 기획안을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음 계획안과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중미사 예음봉헌

12/29 이번 주	페어팩스 2-1구역
01/05 다음 주	페어팩스 2-2구역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4년 12월 22일 (대림 제4주일)

봉헌금	\$ 9,329.00
교무금	\$ 32,410.00
교무금(신용카드)	\$ 15,330.00
감사 헌금	\$ 1,480.00
온라인 봉헌	\$ 5,365.00
합계	\$ 63,914.00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1030
Fios Ch. 30

- 2025년 1월 2일(목) 오후 5:00 - 6:00
- 2025년 1월 3일(금) 저녁 8:00 - 9:00
- 2025년 1월 5일(일) 오전 6:00 - 7:00

1. 주일 강론
2. 생명을 살리는 말씀 - 황창연 신부님 행복특강 앵콜



미사 시간 안내 (Mass Schedule)

주일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미사	• 7:30 PM						
월, 목, 토	<table border="1"> <tr> <th>화, 금</th> <th>수</th> </tr> <tr> <td>• 6:00 AM</td> <td>• 7:30 PM</td> </tr> <tr> <td></td> <td>• 11:00 AM</td> </tr> </table>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